

세제용 AE가격 "오름세"

라우릴알콜·EO가격 인상 따라 ... 일칠화학 괄목 성장

약세를 면치 못하던 비이온 천연계면활성제인 세제용 AE(Alkyl Polyoxy Ethylen ether)가격이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제기업들로부터 할당을 받아 생산하는 임가공형태를 띠고 있는 AE시장이 꾸준한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거래선 확보 경쟁으로 인해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주원료인 EO와 라우릴알콜 가격의 급등을 반영, 10~15%정도의 AE가격인상이 전격 단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세제용 AE 수급현황(단위 : M/T,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일 칠 화 학	3,500	4,500	29
동 남 합 성	3,700	4,300	16
한국포리올	3,000	2,500	▽17
기 타	800	700	▽13
합 계	10,500	12,000	14

또 오는 6월경에는 라우릴알콜 가격이 다시 인상될 예정으로 있으나 세제기업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AE생산기업에서는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하기 어려운 입장인 만큼 이번 AE 가격인상률로는 그동안 악화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95년5월 현재 EO가격은 Kg당 800원으로 94년초 720원에 비해 1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우릴알콜 가격도 Kg당 1.2~1.4달러선으로 94년에 비해 10%이상 올랐으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AE도 94년초 1050~1250원이던 가격이 95년5월 현재 1200~1400원선으로 15%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AE 수요는 환경오염 및 피부자극방지 등의 천연세제 선호세에 따라 주방세제를 중심으로 고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E 수요는 92년 7500톤, 93년 1만500톤, 94년 1만2000톤으로 각각 40%, 14%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94년 기업별 AE공급은 93년에 비해 29% 신장한 일칠화학이 4500톤으로 수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동남합성 4300톤, 한국포리올 2500톤, 고하케미칼·동성화학·한농화성 등 3개기업이 700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일칠화학은 타기업에 비해 가격 및 제품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포리올은 구색제품화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진화학과 미원상사 및 태동화학은 AE를 Sulfonation시킨 AES계면활성제를 세제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제기업중 태평양만이 AES를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제일제당이 자체 설비를 갖춘데 이어 LG화학도 자체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생산원가절감 차원에서 Sulfonation설비를 갖추는 세제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E생산기업별 라우릴알콜 공급선은 일칠화학과 한국포리올이 LG화학으로부터 Henkel-Rika제품을, 동남합성이 삼성종합화학으로부터 Kao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6/12>